

# 한우리 가정예배

가정예배를 회복함으로

- 믿음과 신앙이 계승되는 가정을 이룹시다.
- 사랑이 넘치는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 갑시다.
- 세대 간의 단절을 예방합시다.

## † 가정예배 순서 †

- ➡ 시작하며 “사랑해요”라고 말해요.  
하나님께, 엄마 아빠에게, 자녀에게
- ➡ 감 사 한 주간 감사했던 것을 하나씩 말해 보아요.
- ➡ 기 도 돌아가며 한 문장씩 기도하고,  
마지막은 부모님이 기도해요.
- ➡ 찬 양 91장 슬픈 마음 있는 사람
- ➡ 말 씀 예레미야 1:7-8
- ➡ 실 천 한 주일간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기도제목을 나누어요.
- ➡ 기 도 기도제목과 실천하기로 한 것을 기도해요.  
부모님이 마지막으로 기도해요.(마침)
- ➡ 마 치 며 예배 후 느낀 점을 나눠요.

## † 말씀 및 찬양 †

➡ 말씀 : 예레미야 1:7-8

온 가족이 각자의 성경을 펼쳐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어요.

### 1. 핵심구절을 적어보세요.

예레미야 1:7

.....

오늘의 핵심구절은 7절이에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혹시 친구들 중에 자주 눈물을 흘리는 친구가 있나요? 친구가 울 때 “야 이 울보야!”라고 놀렸나요, 아니면 그 친구가 왜 우는지 얘기를 들어주었나요? 오늘 만나볼 선지자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왜 이 선지자는 눈물을 많이 흘렸을까요? 그리고 눈물을 흘린 다음 어떻게 되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해요.

## † 말씀 나누기 †

### 2. 말씀을 들어요.

지난주에 만난 선지자의 이름을 기억하나요? 맞아요, 이사야예요. 오늘 만나 볼 선지자는 예레미야 선지자예요. 예레미야 선지자도 남 유다 나라 사람이었어요. 그는 요시아 왕부터 시드기야 왕까지 3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슬프게도 예레미야는 자신이 살고 있는 나라가 망하는 것을 지켜봐야 했어요. 같이 지내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는 것을 보아야 했어요. 이렇게 아픔을 겪다보니 예레미야는 눈물이 많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의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예요.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부르실 때 나라가 아주 어려웠어요. 그러니 예레미야는 두려워하며 자신은 ‘아이’라고 하나님께 대답했어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세우셨고 그를 통해 자기 뜻을 전하게 하셨어요. 두려워하는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여 너를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시며 힘을 주셨어요. 이처럼 망설이고 두려워하던 예레미야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어요. 나도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더 이상 아이가 아니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비록 예레미야처럼 어려움을 당하고 눈물을 흘릴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힘주시고 위로하실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나요? 그렇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요. 눈물이 날 것 같다면 하나님께 힘 달라고 기도해요.

### 3. 함께 나눠요.

1.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때가 있나요? 언제 그렇게 기도했는지 이야기해 보세요.
2. 최근에 눈물이 날 만큼 힘들었던 일이 있었다면 가족들에게 말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한 사람의 다짐이 끝나면 다 같이 “힘주실 거야!”라고 크게 외쳐주세요.

### ☉ 일주일 동안 할 수 있는 것 한 가지씩 정해요.

.....

.....